

소비침체로 끙끙 얼어붙은 양봉업계 불황 협회운영도 風前燈火 구조조정 시급하다

본협회는 지난 4월에 2명의 직원을 감원하여 현재 10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걸 놓고 “구조조정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제작년 '96년까지 1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 오다가 작년 '97년도에는 2명의 직원이 퇴직하여 인원보충 없이 12명으로 줄었고, 올해에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2명을 감원했으니 3년 사이에 28.6%의 인원 감축인데 비해 협회업무는 모두 그대로인채 운영되고 있다.

올 연초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 충격이 워낙 크고 양봉업계는 소비시장 침체로 얼어붙은 불황 극복을 위해 한 때 움츠린 인원감축일 뿐, 과거의 업무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적은 인원으로 운영될만한 업무의 효율화가 이뤄진 것이 없으므로 이것 하나로 구조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우리 협회 직원들은 지난 4월 이후 일손 부족으로 허둥대며 협회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경제사정이 바닥을 해매는 가운데 기대에 부풀었던 5월의 아카시아꽃 작황마저 흉작을 면치 못했으니 우리 직원들의 심적 부담은 회원들의 마음고생 못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황의 충격을 안고 종로6가 협회사무실의 이삿짐을 싸들고 지금의 수원 농민회관으로 이사와야 했던 협회직원들의 울적함과 불편한 심기에 일손마저 딸려 허둥대는 요즘, 진정한 구조조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겠다.

굳이 따진다면 협회사무실을 이 자리로 옮긴 것이 구조조정이라 볼 수 있겠다. 종로6가사무실의 임차보증금 6천만원이 현재는 3천만원으로 줄었고, 매월 지출되는 임차비용 즉, 사글세 월 2백만원이 5십만원으로, 기타 수도·전기



김 충 검
(사무국장)

세·관리비·주차료 등 모두 합쳐 월 3백만원 정도 절약효과를 보면서 업무수행 능력은 종로6가에 못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로 노출되기 시작한 경제위기 즉 IMF 관리체계가 찾아온 이후 온 사회 구석구석에 대대적인 혁신작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나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특단의 조치들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미봉책으로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기업이나 산업은 도산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일치된 의견들이다.

대개혁 혁신작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구조조정’이다. 또한 구조조정은 조직의 축소·직원의 감원 등 하향적 위축을 뜻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회사들은 매각 또는 통합 폐합 처분하고, 취약한 부서들은 정리하고, 고임금·저효율의 직원들은 정리하고 한다는 것.

이러한 면에서 구조조정은 혁신작업의 한가지 수단일 수는 있겠으나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우리가 해야 할 혁신작업의 근본적이고 건설적인 요체를 확립해야 하겠다.

구조조정은 문자 그대로 조직의 기능을 능률화 하기 위한 조직구조의 변화와 보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조직과 인원의 폐쇄나 감원 이상의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고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양봉업계를 선도하는 협회조직 운영의

구조조정은 당장 실현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회운영 내부적인 문제 즉, 직원들의 노력과 임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시급한 것은 벌꿀품질관리업무의 효율화로 인력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품질관리업무의 엄정성을 보다 공고히 다지는 일이 시급하다. 이번에 무거운 재정 부담을 안고 탄소동위원소기기를 설치함과 때를 같이하여 아카시아꿀의 품질을 강화한 것은 양봉업계 전체의 구조조정 착수라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뒤따른 품질관리제도 즉 품질보증업무에서 초창기나 지금이나 사고의 전환없이 비능률적인 업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전체 양봉업계로 제도가 확산되지 못하고 제도정착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6월17일 개최된 임원·지회장 연석회의에 품질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방안을 제안했을 때 사안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버려 개선하고자하는 의욕만 꺾이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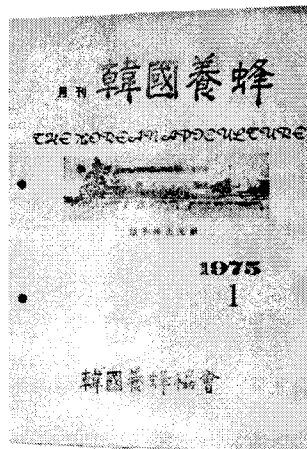
양봉산물 소비침체-불황정도에 대하여 판매업자 회원들의 말을 빌리면 예년에 비해 매출이 60~70% 줄었다 한다. 양봉산물의 유통경기가 어느정도의 바닥세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다보니 생산농가들도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품질인증제' 또는 '생산자 실명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협회 품질관리제도에서 해결할 수 없겠느냐고 문의가 잇달고 있다. 품질관리 업무개선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임원들과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협회직원들의 인력배분을 보더라도 업무 비중을 알수 있다. 현재 10명의 직원중에 사무국에 2명(사무국장, 경리), 양봉산물연구소에 6명(연구소장 1명, 연구원 5명), 품질관리 2명(품질관리원 1명, 총무과장 1명)이다. 이로 보면 협회업무가 벌꿀 품질검사 - 품질관리 부문에 어느 정도 치중돼 있으며, 앞으로 품질관리업무 확산과 제도정착을 목표로 한다면 인력의 태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요체가 확실

해진다.

두 번째로는 이번호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려는 '양봉협회보' 발간업무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우리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1978년 11월 창간호부터 현재 213호에 이른 타블로이드판 신문지 형태로 발간돼 온 '양봉협회보'를 다음달부터는 16절지형 잡지책자형으로 바꿔 구독회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고 자료보존이 쉽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협회사무실 이사짐을 꾸리면서 신문지로된 양봉협회보 보존관을 처리하는데 가장 큰 불편을 겪었던 경험을 통해



이 생각이 더욱 절실해 졌다. 또 이사짐 꾸리면서 발견된 것인데 1975년 1월에 16절지 32쪽의 '월간 한국양봉' 잡지가 창간되고 2·3월호 두 번 발행되어 중단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만일 신문지로 발

간됐었다면 흔적조차 없어졌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협회보를 잡지형태로 바꾸는 일이 인쇄발간 비용에 대한 이용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보 인쇄유인물이 홍수를 이루는 정보화시대에 신문지 형태로 발간 배포되는 '양봉협회보'를 펴보지도 않은채 휴지통에 버려지는 걸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낭비요소를 없애는 일이 진정한 구조조정이란 생각을 저버릴 수 없었다.

▲사진 위 : 1975년 1월1일 발간한 한국양봉협회 최초의 기관지 '월간 한국양봉' 잡지 제1호이다. 동년 3월 2일에도 제2·3호를 발간했는데 지형은 16절지 32쪽 활판인쇄본. 지난 5월 이사짐을 정리하다 발견했으며 현재 紙齡 제214호의 '양봉협회보'와 관계없는 2회분 여분의 보존판인 셈이다.